

'열심현상 꼼짝 마' 우리가 나선다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 열심저감 탐색원탁회의

전주시가 열심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저감대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시민 참여를 통해 높여나가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녹색연합, 전북생명의 숲, 푸른전주운동본부, 시민행동21,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주시 열심저감을 위한 탐색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도시개발과 정에서의 인공피복과 바람길 차단으로 인한 도심열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열섬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시민참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관·의회가 참여하는 탐색원탁회의를 통해 전주시 열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주시 열섬저감 탐색원탁회의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을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가 올해 발표한 전주시 도심열섬저감계획은 녹지정책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복사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인공포장에 대한 철거와 생태형으로의 전환 등은 없는 행정위주의



전주시와 전북녹색연합, 전북생명의 숲, 푸른전주운동본부, 시민행동21,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7일 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주시 열심저감을 위한 탐색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사업추진보다는 시민 등 지역사회 전체의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장 포장개선과 옥상녹화,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 시민공유형·직장인공유형 카셰어링 협동조합 설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물옥상 및 외벽의 차열도료 시공으로 복사열을 차단하는 풀루프 사업, 빗물저금통 설치, 텀굴식물을 이용한 '그린커튼 만들기 사업' 등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열심을 식히는 숲, 열심을 나누는 물, 열심을 줄이는 교통으로 분야별로 조를 구성해 관련 NGO와 행정의 한조를 이루어 도심열섬의 원인 및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별 활동과 토론 등에서 도출된 방법들은 전주시 열심해소 정책에 반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도심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도시개발의 제도적 심의를 강화하고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친환경사업을 지속 추진

하는 등 열섬현상에 대한 후속 대응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심열섬 저감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 도심열섬 저감계획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과 연결된다"며 "인간의 편리함은 줄이고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그에 따른 실천이 열심저감의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풍남문 한마당잔치 '성황'

전주시 풍남문상점가와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축제가 열렸다. 풍남문상점가 상인회(회장 김흥기)와 (사)아리랑문화예술원은 7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풍남문 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예술인 국악과 판소리, 중국의 전통 변검술 공연, 초대가수의 무대가 진행돼 행사장을 시민과 상인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김흥기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에 조성된 풍남문 광장에서는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 기령당 '기로연' 재현행사 열려

웃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미풍양속인 기로연 행사가 재현됐다.

전주기령당(회장 이상철)과 (사)전북전통문화연구소(이사장 이동호)가 주최하고 설예원(원장 이림)이 주관한 전주 기령당 기로연 재현행사가 9일 전주기령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로연 행사는 배례의와 진다례, 가무락 공연, 찬찬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때 임금이 퇴임한 관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들에게 배울만한 잔치에서 유래된 행사로, 지역의 목민관들은 해마다 연회를 열어 노인공경을 실천했다.

전주 기령당에서도 기로연의 전통이 단오절에 유지되어 왔으며, 사단법인 전북전통문화연구소에서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기령당에서 기로연을 복원 재현한 바 있다. 올해도 경로효친 사상을 선양하고 노인공경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중구절을 즈음해 전통적인 기로연을 재현했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경로효친 사상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우리가 본받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고, 오늘의 기로연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가 노인공경의 전통을 이어 전통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탄소산업 발전방향 '머리 맞대'

전주시-탄소융합기술원, '카본인더스트리 포럼' 탄소법 제정 이후 탄소산업의 미래 청사진 제시

미래먹거리로 각광받는 탄소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탄소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카본인더스트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법 제정 이후 민간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 탄소산업의 발전방향을 행정과 탄소기업 대표, 연구원, 시민들이 함께 모색하고, 탄소산업 클러스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영표 한국화학연구원 박사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소개로 문을 연 이날 포럼은 안계혁 전주대학교 교수의 '탄소섬유 복합재 현행 이슈' 발표, 김유태 한국전지산업협회 팀장의 '국내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

됐다. 또한 박영민 울산과기대 교수와 박상희 GS칼텍스 수석이사 각각 '탄소복합재 국제협력 공동연구'와 '환경용 탄소소재 R&D(연구개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그간 널리 알려져 온 탄소섬유 외에도 활성탄소를 이용한 ESS(에너지 저장장치), 필터 등의 새로운 산업 분야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조범영 전주시 부시장은 이날 "탄소법이 통과되는 등 국내 탄소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탄소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마중물 로써 우수 원천기술 확보와 최종재 개발이 시급하다. 탄소기업과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노송동 골목길을 산뜻한 골목갤러리로

전주시 - KT&G전북본부 - 35사단, 담장벽화 조성

어둡고 칙칙한 노송동 골목길이 아름다운 담장벽화가 그려진 산뜻한 골목갤러리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8일 KT&G 전북본부, 35사단 전주대대 등 유관단체와 마을주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노송동 골목길 6곳에 아름다운 담장벽화를 함께 그렸다.

이날 행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범포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참여 마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담장벽화 조성은 시와 KT&G가 지난해 기관연계 업무협약을 맺은 후 추진하는 4차 사업으로, 참가자들은 지난달 10일 담장 바탕정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총 길이 200미터, 높이 2~4미터의 골목길에 맑고 순수한 천사 이미지와 천진난민하게 뛰노는 어

린아이들의 동심을 표현한 벽화를 그렸다.

자원봉사자들은 노후 담장을 복원한 후 벽화전문 감사의 지도에 따라 바탕색을 도색했으며, 전북대 미대 자원봉사 학생들이 벽화 디자인 밑그림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이 붓을 들고 참여해 채색을 마쳤다.

이를 위해 KT&G전북본부는 KT&G만의 독창적인 기부문화인 상상펀드를 통해 벽화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했으며, 35사단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또, 전주시에서는 재료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관·군이 하나 되는 지역발전 연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위 개최

전주시는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0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주민참여 시민아이디어 사업 발표'를 주제로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지난 8월 우리동네 주민참여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81건의 제안사업 가운데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15개 사업에 대해 실시됐다.

이날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동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사업과 참여 사업의 발굴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시민아이디어 사업 발표회는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추진하고 시정 방향에 발맞추나가기 위해 실시됐다. /김영재 기자

발표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별로 작성한 우선순위 평가표를 토대로 사업부서와 최종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직접 참여로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 아래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제안사업들은 △우리 마을 꽃동네 만들기 사업(노송동) △배꼽생 복원을 통한 우리동 역사문화 계승사업(중화산1동) △우리 동네 중고물품 나눔 장터 조성사업(중화산2동) △아중지하보도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인후3동) △소양천변 코스모스길 조성 사업(호성동) △벽면 녹화사업(조촌동) 등 동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